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송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릴
파견대학	ISTC	파견기간	2019. 01. 02 ~ 05. 01.
귀국여부	O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프랑스 북부 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대표도시로 파리보다 벨기에 국경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도시는 전반적으로 젊은 느낌입니다. 학교 캠퍼스는 순천향대처럼 한 곳에 다 모여 있지 않고 단과대학 마다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ISTC는 학교 메인 건물 바로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며 여러 개의 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p>
2019-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일단 가기 전에 한국에서 무슨 수업을 들을 것인지 다 정하고 수업신청서 같은 것을 보내지만 무슨 요일 몇 시에 수업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날에 각자 자신의 수업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온라인에서 항상 확인하라고 해주는게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 종종 있는데 이걸 한국처럼 조교 선생님이나 과대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첫 날에 친절하게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십니다. 수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평소에 받는 그런 수업이고 하나는 세미나 형식인데 매주 받는 수업이 아니라 한 학기에 4~5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물론 한번에 4~6시간 진행됩니다. 파견되기 전에 학교 측 담당자 줄리에게 최소 몇 학점은 들어야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20학점은 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견 전까지 학점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서는 널널하게 20학점 신청했습니다. 가서 시간표를 확인했는데 운이</p>

좋았는지 월,금요일은 공강이었습니다.

- Focus on Africa

이 수업은 아프리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일단 시험은 필기와 ppt발표로 이루어 집니다. 한 수업에 한 명씩 발표를 해야 합니다. 첫날에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날과 발표할 ppt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칠판에 한 7개 정도 주제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을 골라도 되고 다른 것 하고 싶으시면 하고 싶은 주제 말씀드려 하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정해진 주제를 일단 다 시키십니다. 주제로는 기아와 빈곤,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프리카 문학, 아프리카 여성의 정치, 넬슨 만델라, 아랍의 봄, 등등이 있습니다. 한 7~10분 정도 분량을 원하셨습니다. ppt발표를 하면 교수님이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십니다. 다 마치면 학생들에게 질문 있냐고 물어보시고 없으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만든 ppt를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십니다. 이걸로 필기 문제내기 때문입니다. 아 필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의 ppt에서 제출하는데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ppt에서 5문제씩 만들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십니다. 저 때는 학생들 다같이 구글드라이브로 문제와 답 및 ppt 공유해서 쉬웠습니다. 정말 문제를 그대로 내서서 조금만 외우면 어려울 것도 딱히 없습니다. 필기 시험을 저렇게 피피티 문제랑 수업시간때 말씀하신 것들도 한 10문제 들어갑니다. 택 1을 시키시는게 ppt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며 아프리카에 대하여 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거 쓰셔도 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프랑스어 수업인데 2개 난이도로 나뉩니다. Beginner / intermediate로 나뉘는데 일단 저는 비기너로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알파벳 읽는 것만 하고 갔는데 어렵습니다. 중간에 결국 드랍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가시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은 정말 체감차이가 다릅니다. 다른 친구들은 프랑스 오기전에 조금 하고 왔다고 하던데 그 친구들은 그나마 잘 따라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영어는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만 아주 조금씩 사용하십니다. 저는 딱히 불어에 욕심도 있던게 아니라 맘 편히 드랍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줄리에게 알려줘서 대학교 본 건물에 있는 더 난이도 높은 불어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nglish Lectures

강의명처럼 영어 수업입니다. 매주 혹은 2주마다 강사분이 바뀝니다. 교수가 아니라 시간제 강사? 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짧은 수업이고 현지 프랑스인 학생들도 오는 수업이라 부담없이 듣기 좋습니다. 오시는 분 마다 각자 준비하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듣기를 위주로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단어, 해석 등등 다 다릅니다. 그냥 그때 그때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마지막 10분에 간단한 쪽지시험 같은 것들을 봅니다. 수업만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식상의 쉬운 난이도로 문제를 만들어 오십니다. 그 문제 푼 것이 자신이 그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Visual Communication

가장 자유분방한(긍정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내주신 것은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Ppt로 다들 준비했는데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out of the box로 창의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로 군대를 다녀왔던 것과 엮어서 북한과의 역사를 중점으로 한국을 소개하였는데 모두 흥미롭다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환 학생들이 거의 모두 이 수업을 들어서 모두의 나라를 듣는 것만 거의 학기 중반에서야 끝나고 그 다음은 팀플로 미래의 의자를 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끼리 모여서 팀을 알아서 만들었고 역할 분담하고 발표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수업으로 서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다같이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매번 파견된 여러 한국 학생들이 요리를 잘했는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식 기대하라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 Focus on North America

위의 수업과 같은 교수님입니다. 강의명과 같이 미국과 캐나다를 주로 다루지만 거의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수업도 시험은 없기에 부담은 없습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자주 다뤄서 가시기 전에 좀 알아두고 가면 재밌습니다. 이외에도 브렉시트나 그날 그날 발생하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북미회담, 남북회담. 그에 대한 영향 및 파급효과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알고 있어도 영어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 한번 영어로 정리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Focus on Europe</p> <p>유럽이지만 교수님이 이탈리아 분이셔서 이탈리아 주제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광고, 영화, 제품, 기업, stereotype을 다루는 수업을 했고 ppt발표 2번이 시험입니다. 나라별로 팀 플레이를 했습니다. 주제는 각 나라의 고정관념이 광고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제시하십니다. 가장 배운게 없다고 생각하는 수업입니다. 비추천합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도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수업이었습니다.</p> <p>- Elective Sport</p> <p>여러 운동들이 동아리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업이 비는 시간이 잘 맞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조깅, 수영, 축구, 농구, 댄스, 헬스 등등이 있습니다. 가서 프랑스 친구들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BDI라고 교환학생들을 서포트해주는 프랑스학생들 클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주 같이 하는 활동들을 만들어서 초대하고 도움을 줍니다. 오리엔테이션 첫 날에 만날 수 있는데 그 날에는 맨 처음 큰 강의실에서 다같이 앉아서 담당자 줄리와 우리학교로 치면 국제교류처장님에 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여러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보험 가입 및 여러 절차를 같이 진행해 주십니다. 이 후로는 BDI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둘러보기, 간단한 다과 및 대화, 불어 기본 회화 연습, 학교 주변 돌아보기 등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 같이 근처 펍으로 가서 맥주나 간단히 한잔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떠나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그 날 많이 대화 나누고 오랫동안 같이 있던게 친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BDI 친구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초대하고 거기에 매주 무엇을 할 건지를 알려줍니다. 필참은 아니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초반에는 할 것도 없고 뭔지 모르니 많이 같이 시간 보내면 좋습니다. 뒤에는 다들 친해지고 해서 알아서 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BDI 친구들도 뒤로 가면서 솔직히 잘 안모입니다. 교환학생들끼리 친해지는데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다 줄리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1월부터 시작했는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눈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는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방수로 된 바람막이나 유니클로 경량 패딩 추천합니다. 유럽인들은 우산을 다들 잘 안 쓰는데 처음에는 저도 쓰고 다니다가 점점 귀찮아지면서 안 쓰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 방수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패딩은 부피도 크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따뜻할 시기라 안 가져가고 히트텍을 가져가서 입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입입니다. 아니면 입고 버릴 패딩 가져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날씨가 맑은 만큼 흐린 날이 정비례한 겨울입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제가 있을 당시는 시위 때문에 주말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대가 최루탄을 던지면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친구 만나러 가다가 화생방처럼 눈물 콧물 쏟으며 다시 기숙사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릴의 와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조금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밤에는 이곳을 지날 때 조금은 경계하고 귀에 이어폰 꼽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 동네 흑인이 많습니다. 동양인이 릴에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으로는 형성된 커뮤니티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식료품 삽니다. 아무튼 와젼 지역은 막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것 없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한 경험은 없지만 릴을 거쳐간 많은 교환 학생들이 똑같이 와젼은 완전 안전한 곳은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소매치기는 언제나 항상</p>

	<p>조심하시고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고 보시길 추천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AEU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Marguerite Yourcenar로 학교에서는 걸어서 20분으로 거리가 조금 있으나 시설 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원래 요양원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거쳐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1주일 처음 다니고 느꼈지만 학교는 무조건 가까운게 최고입니다) 총 인원도 적당하고 세탁기, 공동 주방, 등 단체생활에 적합한 컨디션이었습니다. 세탁기는 기숙사마다 한 많아봐야 4대이기 때문에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방번호를 적어서 순서를 선착순으로 정하곤 합니다. 프랑스는 따로 분리수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나 다 그냥 한 곳에 모아서 버립니다. 따로 종량제 봉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봉투 큰 거에 다 버리고 밖에 위치한 큰 쓰레기 통에 넣으면 알아서 가져갑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숙사마다 오전에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 분들이 계시지만 자신이 요리하고 난 것은 치워야 합니다. 카드 키를 방에 놓고 나오면 들어갈 방법이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아마도 기숙사마다 페이스북 그룹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입해서서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디즈니 랜드나 다같이 뭐 하자 뭐 하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 보시고 참여하시면 학교친구 말고 기숙사 친구 만들기 쉽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료품이 저렴하여 요리를 자주 하는데 이때 서로 요리도 나누어 먹고 하다보면 금방 친해집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AEU 기반의 카페테리아가 학교 근처에 여러 개 있습니다. 3.5유로 정도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돈 아끼기는 좋은 방법이나 매일 먹으면 무조건 질립니다. 그럴 때 프랑스의 이마트인 까르푸나 마켓에 들어서 식재료 산 뒤 기숙사 가서 요리해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구글맵스에 Korean market 치시면 한 3개정도 중국 식료품점 나오는데 거기서 한국 라면이랑 알코올 종류 좀 있습니다. 또 마트에서 삼겹살에 쌈 종류사서 파티 열면 인싸되실 수 있습니다. 애들 불닭볶음면 해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걸 부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와썹 쪽에 있는 가게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들은 대개 비쌉니다 한끼에 대략 9천원 정도. 좀 괜찮게 먹으면 1만 2-3천원 그냥 나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는 걸어 다녔습니다. 이어폰 꼽고 노래 들으면서 거리 걸으면 금방 갑니다. 시내교통은 택시는 일단 패스 아시죠? 우버가 답입니다. 가서 우버 어플 깔고 택시 타야 하면 우버 타세요. 버스가 있는데 저는 지하철을 더 애용해서 시내 버스는 한 번도 안타봤습니다. 지하철 카드는 친구들이 가릴프헝가면 인포에서 한 달 무제한 카드를 살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해서 10회권 충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자전거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가는 것은 일단 근처는 Flixbus가 바이블입니다. 돈 없는 교환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으시면 벨기에 샤를로이 공항이 가장 좋습니다. 공항 셔틀버스인데 Flibco 구글에 치시면 됩니다. 강추. 릴로 오려면 파리에서 기차타고 오는게 가장 빠르는데 이때 cdg 공항에서 까뜨준이라고 25세 이하인가 50유로 내면 1년동안 할인된 가격에 탈 수 있습니다. 저는 했는데 굳이 안해도 되겠는게 기차 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플릭스 버스가 갑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인천>파리 편도100만원 (연말 새해 시즌이라 비쌌고 언제	국제학생증 발급받고 ISIC에 항공권 문의하면 더 싸게 발급

	돌아올지 몰라서 편도로 함) 파리>헬싱키>인천 40만원	가능합니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음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현대해상보험 들고감
숙소	한달 60만원	
식비	약 35만원	술 줄이면 달라짐
교통비	약 10만원	
책값	없음 다 ppt	
기타1	여행비	
기타2		
합계	800만원	여행비가 많이 들었음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정보 찾으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프랑스 행정이 한국에 비해 꽤나 느립니다. 이르게 준비하시면 천천히 여유롭게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어 소통이 가능하긴 하나 아무래도 불어라는 그 나라의 언어가 있으니 기본 회화는 공부를 해서 가는게 최소한의 그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좋아해주고요. 저는 학업이 최우선의 목표가 아닌 교환학생 파견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부딪혀보고 아니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것이니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두려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많이 추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인연들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카드는 카카오뱅크 하나, 국제학생증으로 받은 신한은행 하나, 신용카드 하나 가져갔습니다. 신용카드가 고장이 나서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나머지 2개로 어려움 없이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계좌는 개설 하려다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중앙에 있어 여행하기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여행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제 대학생활 중 잊지못할 학기였습니다. 꼭 다른 순천향 학우분들도 꼭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교환학생으로 새로움이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앉을 것 같지만 어느새 자유롭게 헤엄치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들과 홈파티



첫 오리엔테이션날 다같이



베스트 프렌즈



방학에 친구들과 영국여행



교환학생들 모임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친구들과